주변 적그리스도 색출기준

(다니엘 8:1~27)

5.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6. 그것이 두 뿔 가진 숫양 곧 내가 본 바 강 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7. 내가 본즉 그것이 숫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숫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숫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숫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숫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8.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9.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10.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의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11.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재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12.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주변 적그리스도 색출기준>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주변 적그리스도 색출기준’
적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주변에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를 외형적으로만 찾으려고 할 때에 교회의 쇠락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앞장에서 본대로 다니엘의 환상에 네 짐승이 나타납니다. 네 짐승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사람에게 빙의되어서 그 사람을 지배하는 마귀를 형상화시킨 것입니다. 이 마귀의 활동을 빙의라고 표현한 이유는 타락한 인간의 삶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이 인간 고유의 속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네 짐승의 모습은 독립된 영적 존재인 마귀에 의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네 번째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마귀였습니다. 7장 7~8절을 보면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의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세 뿔을 뿌리째 뽑았다는 것은 앞서 나왔던 독수리 날개가 뽑힌 사자의 모습, 잇사이에 세 갈빗대를 물고 있는 곰의 모습,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머리 넷이 달린 표범의 모습으로 상징되었던 마귀의 역할을 모두 장악하고 동원했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이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과의 연결이 끝난 사람들에게 빙의되어 역사하는 세 마귀를 장악해서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뿔에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다는 것은 바로 성도를 찾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 눈으로 성도를 찾아서 큰 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설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 번째 짐승에 빙의된 사람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역할은 교회 안으로 사자, 곰, 표범으로 상징된 마귀를 끌어들여서 교회를 쇠락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은 박해 없이 전파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중국에서는 공안들이 선교사를 색출하고 있어서 중국선교가 마비되다시피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박해는 적그리스도의 일은 아닙니다. 역사의 구간 중에 박해는 항상 있어왔습니다. 이들의 박해가 적그리스도의 일이 아닌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공안들은 하나님에 대해 알면서 선교사들을 색출해내는 자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눈은 성도를 겨냥하고 있는 눈입니다. 성도를 겨냥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네 번째 짐승으로 상징된 마귀는 하나님을 직접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성도를 대적하고, 성도와 하나님을 연결하기 위해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그렇기에 적그리스도라 일컫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성도를 연결하시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한편 적그리스도는 이 길을 끊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은 애초에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번째 짐승의 역사는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적그리스도가 활동할 때에 교회는 생명력을 잃고 박제화 되어갑니다. 박제한 동물이 외형은 살아있을 때와 동일하나 내부에는 어떠한 생명력도 없이 텅 비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번듯한 교회를 결코 싫어하지 않습니다. 겉모습은 번듯하나 박제와 같이 내부에 그리스도가 사라진 상태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성도들 또한 겉모습만 번듯한 교회를 좋다고 여기게 됩니다.

중국 공안들이 선교사들을 잡아서 축출하는 상황은 두려워할만한 것이 못 됩니다. 선교는 때가 되면 하나님에 의해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중국의 기독교 박해야말로 한국

교회의 박제 상태를 벗어나라는 하나님의 경고로 생각합니다. 겉모습은 그런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속에서는 이미 생명력을 잃어버린 박제화 된 상태로부터 벗어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숨어있는 적그리스도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해서 생명력을 다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한국 교회가 적그리스도를 제거함으로써 내부적인 생명력을 회복한다면 중국이든 일본이든 선교의 길은 비로소 열린다고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간 많은 선교사를 배출해왔습니다. 아프리카나 동남아 등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이 선교가 진정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 내에서 적그리스도를 발본색원함으로써 내부적 생명력을 키우는 것이 관건입니다. 내부적으로 썩은 상태에서는 선교에도 힘이 생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상적인 의미에서 탄압과 박해가 있고 선교의 길이 막힌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약 400년간의 역사적 사건들이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 나타납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본 시기는 벨사살 왕 3년으로써 BC.548년경입니다. 바벨론이 망하기 10년 정도를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먼저 숫양의 환상을 보는데 두 뿔이 있는데 한쪽의 뿔이 유난히 깁니다. 이 비대칭의 뿔을 가진 숫양은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을 상징합니다. 그중에서도 긴 뿔은 바사로써 메대까지 통합여 통일 제국을 이루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숫양을 무찌르는데 얼마나 빠른지 발이 땅에 닿는 것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바사 즉 페르시아가 약 200년간 유지되다가 BC.331년에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에 의해 멸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숫염소에게 뿔 넷이 자라더니 그 중에서 작은 뿔이 또 자라나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집니다. 뿔 넷은 알렉산더 대왕이 제국을 형성하고 고작 10년 후에 바벨론 지역에서 급사하게 되는데 이후 헬라 문화권이 네 개의 왕국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되는 작은 뿔은 시리아 지역이었던 셀류코스 왕국의 8대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써 알렉산더 사후 분열되었던 헬라 문화권의 중심을 이루게 됩니다.
약 400년간의 기간을 망라하는 본문의 환상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왕권을 잡은 뒤에 점령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통치하며 헬라 문화를 장려하고 정착시키려고 했습니다. 11절을 보면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재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라고 하였습니다. 이 지역 내에는 유다도 속해있었는데 유다 또한 헬라화 확장정책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종교 말살정책이 시도되었고 날마다 드려지던 상번제가 폐지되고 성소모독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번제단 위에는 제우스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고, 율법에서 부정한 동물로 규정되었던 돼지를 잡아 제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돼지의 피를 성소 벽에 바르

는 등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학자들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적그리스도로 일컫습니다만, 우리가 앞서 본문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적그리스도는 성도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몰랐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적그리스도에 부합하는 존재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헬라 문화를 확장하고 정착시키려는 목적 아래에서 유대교 말살이 시도되었던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적그리스도로 생각한다면 조선시대 말기에 쇄국정책을 펴고 기독교를 탄압했던 대원군 또한 적그리스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원군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서양 귀신이라 부르며 박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그리스도의 기준에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어느 곳에서든지 이러한 박해와 탄압은 존재해왔습니다.
다니엘의 환상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집중되는 이유는 상번제와 성소에 대한 모독 때문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업무상 과실치사를 일으킨 셈입니다. 헬라문화의 정착을 시도하는 중에 유대교를 말살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번제를 없애고 성소를 모독했습니다.
한편 본문 12절을 보면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성소를 모독하였는데도 형통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심이 되는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상번제를 없앤 것, 성소를 더럽힌 것, 삶의 형통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적그리스도가 아니었지만 우리는 이 세 가지 기준을 통해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진짜 적그리스도를 색출해낼 수 있습니다.

먼저 성소를 헐었다고 하였습니다. 성소는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전 말씀에서 지성소는 마음의 지성소를 외형화시켜 놓은 것이고 성소는 마음의 성소를 외형화시켜 놓은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키는 법궤가 들어있었습니다. 마음의 지성소에는 이름이 들어있는 곳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이름을 담느냐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기쁨과 만족을 채워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대상의 이름이 담기게 됩니다. 돈을 많이 벌 때에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돈이라는 이름이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자녀의 형통이 곧 나의 인생의 만족과 기쁨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자녀라는 이름이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소와 지성소의 존재의미는 마음의 진단에 있습니다. 성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하는 법궤가 있었던 것처럼 본래 사람의 마음의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이름만이 들어와야만 합니다. 하나님 크기로 비어있는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운 상태가 온전한 인간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지성소에 돈, 자녀의 형통, 출세 등과 같은 세상의 가치들의 이름이 들어오게 된다면 마음에 더러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 왕이 준 음식을 거부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깨끗함은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성전의 존재의미는 마음을 비교해봄을 통해 마음을 진단하는 청진기였습니다. 하나님과 지금 연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이 깨끗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성전의 방식을 따라야 했습니다. 성전의 방식이란 곧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키는 법궤가 있었던 것처럼 내 마음의 지성소에도 유일한 기쁨과 만족의 대상으로 하나님만을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들어와 계셔야 할 마음에 세상의 가치가 들어와서 더러움이 생겼음을 발견했다면 번제단에서 죽임으로써 깨끗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이 처음 깨어나서 빈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졌던 것처럼 번제단을 통해 아담의 첫째 날을 회복하라는 것이 번제단의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더러워진 마음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삶의 문제들입니다. 이렇게 삶의 문제를 담고 있던 마음을 번제단에서 죽일 때에 삶의 문제는 형통입니다.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살아가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갑에 대한 비유를 몇 번이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전을 통해 마음의 더러움을 진단하고 번제단에서 그 더러움에 대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셔들이게 되면 마음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육체와 지정의를 장갑으로 끼시고 활동하시게 됩니다. 장갑은 손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서 움직일 뿐입니다. 장갑 스스로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상태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하나님을 몰랐다는 점에서 적그리스도의 자격에는 미달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에서 우리 주변에서 적그리스도를 색출해낼 수 있는 기준을 발견할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소를 헐어서 성도로 하여금 더러움과 깨끗함의 문제를 망각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큰 사업을 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안되자 목사님을 찾아와서 사업이 잘 되기 위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집사님의 마음의 지성소에는 사업이라는 이름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업이 흑자가 되어야 기쁘고 만족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업이 안 되면 슬퍼할 수밖에 없다고 믿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기에 마음은 더러워진 상태입니다. 이때에 목사님이 해야 하는 일은 성소와 지성소의 모습을 통해 마음의 더러움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를 진단하지도 않고 더러움을 묵인합니다.

이것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소를 헐었던 사건이 우리의 삶에서 재현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더러움을 진단하는 청진기로써의 역할을 해야 하는 성소가 무력화됨으로써 더러움을 죽이는 장소인 상번제의 번제단의 의미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삶의 형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목사는 이제 목사의 탈을 쓴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한 번 나타나서 온 성도들을 현혹하는 역사적 인물이 아닙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하나님에 대해 모르면서도 헬라 문화를 확장하려는 시도 중에 유대종교를 말살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행위인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관통하는 주제의식은 하나님과의 연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00년에 걸쳐 나타나게 될 역사적 사건을 환상으로 보았다고 해서 다니엘의 관심이 역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일으킬 사건을 상징으로 신앙적 문제점을 꼬집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주제에 그러한 사건들을 일으켰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건은 적그리스도가 하게 될 행동의 예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적그리스도는 성도들 가운데 존재하면서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연결을 끊는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의 연결을 끊는 첫 번째 조건은 더러움을 묵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만 하는 십자가 생활화는 구약에서 상번제의 어린양으로 예표 되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주님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진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더러움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대신 성도들을 향해 세상의 삶이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노력하라, 수고하라, 추진하라, 계획하라, 뛰어라, 성공의 법칙을 적용하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기독교의 세계관에서는 나올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삶 자체를 하나님의 일로 봅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세상문제를 담고 있는 성도들 앞에서 목사님들이 삶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통하기 위해서는 봉사하라, 충성하라, 헌금 많이 하라, 기도 열심히 하라고 제시합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소를 헐었다고 한 것처럼 성도들에게 성소의 존재 의미를 없애고 더러움의 상태를 유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러움의 상태를 강화시키고 권장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기에 교회에서 십자가를 생활화하자는 말은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형통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생활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형통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는 자아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은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마음에 담기 위해서입니다. 반대로 세상의 가치라면 설령 그것이 내 몸이라도 마음에 담는 순간 더러움은 발생하고 하나님과의 연결은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기 위해 세상에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여기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며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고 나를 장갑 삼아 세상을 살아가실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정합니다. 네가 일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느냐,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도 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쓴 후에 하늘의 뜻을 기다리라는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뜻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는 적그리스도가 삶의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일본 선교가 오랫동안 부진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많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의 생각으로는 우선 우리나라 교회 속에 존재하는 적그리스도들을 퇴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한국 교회가 적그리스도를 색출해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왕성하게 활동한 결과 교회형태는 남아있으되 생명력은 상실한 박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지를 살아야 될 일본의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봅니다.
선교 현장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받아들여지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미개발 국가에 학교를 지어주고 병원을 지어준다고 해서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선교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 전도여행을 할 때에 로마 시민들에게 자선을 베풀었던 것이 아닙니다. 거지처럼 돌아다니며 예수를 전했을 뿐인데 그 결과 로마가 뒤집히는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서 적그리스도의 근성을 갖게 하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적그리스도의 근성을 갖게 하는 마음이란 성도들의 더러움의 문제를 묵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하였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또 빌립보서 3장 18절을 보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라고 적그리스도에 대해 언급합니다. 십자가는 내가 세상에 대해 죽는 사건입니다. 세상에 대해 죽어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마음의 더러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할 때에만 하나님을 모실 수 있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마음에 사업을 담는 것을 묵인하고 응원한다면 그 교회는 적그리스도들과 적그리스도들에 의해서 배운 사람들의 집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교회라면 마음에 사업을 담아서는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며 깜짝 놀라며 십자가를 가르쳐줄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진정한 회개도 일어나게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마음에 사업을 담는 것은 얼핏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에 관심이 없다면 미친 사람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상의 관점에서는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자들이 기독교인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세상의 관점을 교회로 끌어들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마음에 사업 담는 것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인정해줍니다. 하나님은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는 분에 불과합니다. 기도하는 대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나가서는 사업에 열중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다보면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이러한 말들이 오간다면 적그리스도의 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바로 음모론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나타나서 세상을 뒤흔들 존재라고만 여기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 주변의 적그리스도를 놓치게 됩니다.
분명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적그리스도가 될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에서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일들이 예표로 나타날 것임이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담아서 더러움이 발생하면 하나님과의 연결도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은 네 짐승으로 상징되는 마귀들이 들어와서 빙의하여 사는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를 생활화하고 붙잡아야만 합니다. 그럼으로써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는 자아의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 자아의식이 나의 신분이고 지위입니다. 나는 자녀들의 아버지이기 이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은 나를 장갑으로 끼시고 일해가실 것입니다.
장갑은 손이 움직인 만큼만 움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그 어떤 사람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움직이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움직여도 그것은 장갑의 손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장갑으로 끼신 우리는 아무리 많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스스로 한 일이 아닙니다.
반대로 적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면 삶도 끝나버릴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더러움을 끌어안고 살도록 설득할 때에 쓰는 방식입니다. “내가 안 움직이는데 누가 움직이나? 내가 하고 나서야 하나님도 도와주실 수 있다. 내 일에 아무런 노력과 정성도 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나?”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쏟을 대상은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갖기 위해 마음을 다하고 수고와 노력과 정성을 다해 십자가를 붙잡고 상번제를 기억하며 땅에 대해 죽

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마음의 만족과 기쁨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 직장에서 해야 될 일, 학생으로 해야 될 일, 주부로써 해야 될 일, 인생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래알처럼 많은 생각으로 다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삶의 문제를 끌어안고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라며 기도하고자 한다면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적그리스도를 색출해내는 명확한 기준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소를 허물고 상번제를 없애버리고 형통을 이야기한 것처럼, 더러움의 문제를 묵인하고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않으면서 세상에서의 형통을 바라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삶이 형통하기 위해서는 삶을 붙잡고 책임지고 부담을 느끼며 노력하고 뛰라고 부추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까지 이렇게 부추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네 번째 짐승으로 상징된 마귀에게 빙의되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빙의로 나타난 더러움에서 벗어날 기회가 제공되어야만 합니다. 그들이 빙의에서 벗어나 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한 십자가 생활화를 전해주어야만 합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받아들인다면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나게 하는 네 번째 짐승으로 상징된 마귀는 쫓겨나갈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버리신 자로써 적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과 마주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취해야 하는 태도는 비판과 배척이 아닙니다. 십자가 생활화의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적그리스도의 기준을 나 자신에게도 적용하여 더러움을 발견하고 깨끗함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8장의 말씀은 나 자신에게 적용되어야 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적그리스도를 발견한다면 십자가 생활화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적그리스도에게 마음을 주고 의지하며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

서. 십자가 생활화에 목숨을 걸고 하늘과 땅 양쪽에서 온전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